**코닉글로리와 ‘보안위협 공동 대응체계 구축’ MOU 체결**

본교와 코닉클로리는 12월 5일 행정관에서 ‘보안위협 공동 대응체계 구축’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고 밝혔다. 이번 협약은 코닉글로리가 국내 시장점유율 90%를 차지하고 있는 위협관리시스템(TMS)를 본교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 이번 MOU 체결로 고대는 신종 보안 위협에 대한 탐지를 담당하고 코닉글로리는 이를 분석 및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

또한 코닉글로리는 본교와 연계된 인턴십 프로그램 역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. 관련 업종에 참여하여 배우고 싶은 3학년과 4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.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중 졸업 후 코닉글로리에 입사를 희망할 시에는 가산점도 부여한다. 이번 MOU를 통해 실력 있는 후배들을 발굴하는 것 또한 본교와 맺은 MOU의 목적이다.

코닉글로리 관계자는 “이번 MOU 체결을 통해 당사는 신종 보안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” 며 “고려대학교 역시 산학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 있다”고 전했다.